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군)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힘내서 새로워집니다.

[제 1독서] 코헬 1,2: 2,21-23

[화답송] 시편 90(89),3-4.5-6.12-13.14와 17(© 1)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
  - 당신이 그들을 쫓아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장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제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제 2독서] 콜로 3,1-5.9-11

[복음 환호송]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루카 12,13-21

성가	8시 미사	입당 459	봉헌 210 221	성체 164 179	파견 6
	11시 미사	입당 459	봉헌 210 221	성체 164 179	파견 6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18주일(8월 4일)		연중 제 19주일(8월 11일)		연중 제 20주일(8월 18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에리)	권미카엘(창모)	김글라라(순희)	전베로니카(진영)	이바로(명국)	조레지나(선덕)
제 1 독서	김안드레아(찬곤)	허라우렌시오(순구)	이바로(명국)	이베드로(기만)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제 2 독서	김글라라(순희)	허파비올라(옥진)	정스텔라(에리)	이골롬바(정연)	김안젤라(영선)	심헬레나(승화)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PDF Created with deskPDF PDF Writer - Trial :: http://www.docudesk.com

오늘의 강론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허무로다 허무!” 라는 코헬렛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는 걸 보면, 확실히 인생은 허무하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가 봅니다. 하지만 코헬렛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코헬렛의 말씀은 수많은 백성이 힘들게 수고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수고의 대가가 백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을 가진 소수의 힘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한 현실을 허무하다고 토로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살다보면 어느 날 문득,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결코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2독서에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골로3,1)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은 헛된 환상에 빠져 세상을 잊고 구름에 둥둥 뜬 기분으로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능동적으로 살라는 말이며, 구체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이며, 우리 사람들이 참된 품위를 지키며, 인간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며 삽니다.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획득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행복과 안락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차지하려고 탐욕을 부립니다. 온갖 부

정과 부패와 뇌물 사건들은 바로 이런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돈과 재물로 감싸여 있는 자신을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고급 승용차 타고,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뽐내며,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일갈을 날리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너희는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루카12장)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탐욕을 경계하며,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느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열심히 살았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항상 탐욕을 경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봅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하느님의 은혜를 안다면...

개미와 베짖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더운 여름날 베짖이는 나무 그늘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비웃지만, 겨울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베짖이는 개미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많은 소출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자는 베짖이가 아닌 개미에 비교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무라십니다. 그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 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지 않고 자기의 큰 재산만 믿으며” (시편 52,9) 산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거둔 많은 소출이 하느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소기 성과를 거두도록 안배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농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씨가 싹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적당한 햇살과 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는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부자들은 열매와 곡식이 자라는 논과 밭을 자기네가 소유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싹 틔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십니다. 자기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거기서 일한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궁핍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부자들의 임무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나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 꼬여들어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자식들이 불목하며 친족 간에 분쟁이 벌어진다면, 그 재산을 모으려고 쏟은 “모든 노고와 노심” 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제1독서)

자신이 거둔 결실과 성공이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오로는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 하지 말라” 고 권고합니다.(제2독서)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현세적인 것, 곧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버릴 때 가진 바를 흔쾌히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에 나눔으로 응답하는 신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느님보다는 돈에 더 희망을 거는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하느님이 진정한 주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한다면, 가진 바를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희승 베네딕토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8월의 성인/성녀

니코데모, 도미니코, 로사, 모니카, 마리아(성모)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바르톨로메오,  
베르나르도 아바스, 사비나, 아리스타르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아우구스티노, 필로메나, 페르페투아, 헬레나, 추고

\* 성 도미니코(8월 8일)

성 도미니코(Dominicus)는 에스파냐 북부 부르고스(Burgos) 지방의 칼라루에가(Calaruega)에서 태어났다. 그는 1203년에 오스마의 복자 디에고 데 아제베도(Diego de Azevedo, 2월 6일) 주교를 수행하여 프랑스 남부 랑그도크(Languedoc)로 가서 알비파 이단을 상대로 설교하였고, 시토회의 개혁을 도왔다. 1206년에 그는 알비파(Albigenses) 지역인 프루이유(Prouille)에서 여자 수도회를 설립하였고, 수많은 수도자들에게 강론하였다.

신부이며 설립자인 성 도미니코는 수도회의 조직을 위해 여생을 보내면서 이탈리아, 에스파냐 그리고 프랑스 등지를 다니며 순회 설교를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많은 회원이 새로 입회하면서 수도회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새로운 수도회는 지성적인 생활과 대중들의 요구를 잘 조화시켜 회개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1220년에 볼로냐(Bologna)에서 수도회의 첫 번째 총회를 소집하였고, 그 이듬해 8월 6일 그곳에서 운명하였다. 그는 헝가리 순회 선교에서 얻은 병으로 인해 일생을 마감했다. 그는 1234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Gregorius IX)에 의해 시성되었으며, 천문학자의 수호 성인이다.

신앙인은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의 향기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

최근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는 ‘우리 하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저를 아끼는 따뜻한 위로의 말임을 알고 있지만, 요즘엔 제 주치의인 성모병원의 강진형 교수가 ‘우리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누워서 환자 노릇만 하란 말이오. 의사 말대로 하면 다 죽어요. 의사의 말 반대로 하면 살아난대유.” 저도 처음에는 가능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푹 쉬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누워서 잠만 자고, 책보고, 꿈쩍 않고 텔레비전만 보노라니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서 그야말로 완전한 환자가 된 비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몸을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끝까지 걸어보니 오십 보. 한 바퀴 돌아오면 정확히 백 보였습니다.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저는 시간만 나면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백 바퀴를 돌아 만 보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운전대도 잡았고,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거리를 늘려 한남동에 있는 작업실에도 나갔습니다. 내키면 청계산에 가서 쉬엄쉬엄 약속터까지 걸어가고 멀리 여행도 떠나는 등 가능하면 제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일찍이 당나라의 선승 동산(洞山)에게 한 스님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찾아오면 이를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동산이 대답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럴다면 도대체 “어디가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입니까.” 그러자 동산이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추울 때는 그대를 더 춥게 하고, 더울 땐 그대를 더 덥게 하는 곳이다.” 우리는 추우면 본능적으로 더운 곳으로 피하려 합니다. 더운 곳으로 피하면 추위는 일시 가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통이나 근심이 있을 때 술을 마시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피하고 잊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추위를 피하려면 애써 더 추운 곳으로 찾아가라는 동산 스님의 말은 고통이 오면 더 그 고통을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도가서(道家書)인 「열자(列子)」에는 전설적인 신궁 비위(飛衛)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기창(紀昌)이 찾아와 활쏘기를 배우려 하자 비위는

말합니다. “활쏘기보다 먼저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끝까지 보는 공부부터 하게.” 이순신 장군도 말씀하셨습니다. “살려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면 곧 살 것이다.(生即必死 死即必生)”

주님도 이렇게 못 박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마태 10,39)”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루카 2,10)” 라고 찬양하였듯이 우리가 겪는 이 들판에서 밤을 새우는 추위는, 이 병은, 이 슬픔과 고통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듣기 위한 특별한 은총이니,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해서라도 일어섭시다.

우리를 해서라도 길 수 있으면 기고, 걸을 수 있으면 걷고, 달릴 수 있으면 뛰어서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처럼 ‘구유 위에 누운 아기 예수를 보러 갑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기쁨에 젖어 하늘의 군대와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최인호 베드로 | 작가

머무름

안락사는 ‘그릇된 자비’ 아닌 자비의 염려스런 ‘왜곡’ 이라고 봐야 합니다.

참된 ‘자비’ 는 타인의 고통에 함께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자비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66항

## 가톨릭전례 **덕(德)이란 무엇이며, 윤리적인 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질주하는 열차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골절상을 입거나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것은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물질적인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합니다. 잘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물리(物理)라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간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과 주변 환경 사이에 물리적인 관계가 형성되듯이, 자기 자신과 타인 사이에는 윤리적인 관계가 발생합니다. 윤리(倫理)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원리, 즉 인간관계의 도리이며 예법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인 자유를 부여 받았고 양심의 판단에 따라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유의 사용은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동이 자신과 이웃에게 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몸에만 확고한 마음가짐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803항)

이 단호한 마음가짐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감정을 바로 잡아 선한 행위에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짐승과 다르게 우리가 인간다운 것은 윤리적인 덕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윤리는 인간 사회를 받쳐 주는 기둥으로서 재물에게 그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현명함’, ‘정의’, ‘용기’, ‘절제’ 이렇게 중요한 네 가지를 윤리적인 덕으로 권장합니다. 인간적인 덕 가운데서 현명함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참된 선을 식별해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으뜸의 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양심의 판단에 따라 선을 추구하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악을 피하고 선을 택하는 덕(德)으로서 “현명함이 너를 보살피고 슬기가 너를 지켜 악의 길에서, 너를 구해주리라.” (잠언 2,11-12)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선을 향한 습성은 인간이 본래 완전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덕은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되는 것입니다. 덕의 원천은 선 자체이신 하느님이시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덕이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르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이 길을 가야만 자신의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으며 잘 살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809항)

오늘날의 세상은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수많은 물건과 호

화 브랜드를 앞세운 명품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넘쳐나고, 그것들은 우리의 눈과 귀, 심지어 생각까지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정말 고귀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 영혼, 양심, 겸손, 효도, 배려, 자선, 희생, 예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돈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새 공간에 가득 쌓인 곡식과 재물이 행복을 보장한다는 생각은 큰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보물은 하느님 나라 밖에 있으며, 덕은 그 보물을 캐기 위해 우리가 마련해야 할 도구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태 13,44)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1803-1809항

사목국 연구실

### < 제 대 >

#### 1. 유래

- 히브리어의 '제사의 장소'에서 유래
- 초기 교회 때 순교자의 무덤 위에 제단을 세우고 의식을 치르던 관습에서 유래

#### 2. 의미

-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중심점으로 전례 거행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곳
- 데살로니카의 시메온 : "제사 없이는 그리스도를 언급할 수 없다"
- 사도 바오로 : "그리스도교의 제대는 주님의 식탁"

#### 3. 예절

- 사제는 미사 시작과 끝날 때 제대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함
- 제대 앞을 지나갈 때는 정중하게 절을 함

#### 4. 설치 및 장식(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제대에 대한 실천적 제안')

- 제대는 오직 하나만 설치함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지나친 장식을 피함
- 불필요한 장식등을 가까이 두지 않음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7	204	-	291
헌 금	\$533	\$1,197	-	\$1,730

< 교무금 > \$3,575

윤성진(5-6) 변귀태(7) 고연석(7) 팽현팔(7)  
이정연(8) 김민규(1-4) 박종영(7-9) 조덕행(7-8)  
강신호(5-6) 심재구(7) 조우송(8) 이건용(8)  
박호영(8) 박일신(8) 김영자(7) 김유현(1-12)

< 성소후원금 > \$70

고연석(6) 조덕행(7-8) 박호영(8) 박일신(8)

< Bishop's Appeal > \$100

변귀태(7) 김민규(1-4) 조덕행(7-8)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2,850  
\* 총 납입 \$50,850

\* 지난 주 봉헌해 주신 분  
권보미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015.28(185 세대 약정)  
\* 봉헌액 \$291,545.28

날짜	연	지 향	봉 헌 자
8월 4일 일	연	김중화	정대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대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대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이골롬바(정연)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이마리아(명자)	이요셉(건용)
	연	박피데스(신덕)	가족
	연	박베드로/마리아	박대레사
	생	본당신부님	10구역원
	생	본당신부님	신빈첸시오/올리엠타
	생	홍안나	7구역원
	생	이아가다	7구역원
	생	송라우렌시오(동기)	하늘의문 Pr.
	생	정로사(화봉) 생일	익명
	생	박헬레나(호영)	이골롬바(정연)
	생	박헬레나(호영)	이안나(순자)
	생	이정우	전수산나
	생	김그라시아(정옥)	김도미니코(원조)
	생	김그라시아(정옥)	정토마스(영수)
	생	유케빈	유대레사
	생	홍토마스 가정	이안나(순자)
	생	임스텔라 가정	임루시아
	생	권글라라(선)	정스텔라(애리)
	생	권글라라(선)	김로사리아(경숙)
	생	강도밍고(길준)가정	김안토니오(휘)
	생	원스텔라 가정	원쟁마
8월 6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8월 7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생	박세레나(동신)	영원한도움의어머니
	생	임베드로(장만)생일	임안젤라
8월 8일 목	연	김사비나	채대레사
	생	본당신부님	익명
	생	본당신부님	임루시아
8월 9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8월 10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관용)
	생	허라우렌시오	채토마스

~~~~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친교시간이 있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양 -

- ◆ 여행자를 위한 안수기도 : 오늘 미사 중
- ◆ 도미니코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이 8월 8일입니다.  
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시간이 있습니다.(비빔밥 제공)
- ◆ 약정하신 2013년 Bishops Appeal 을 8월말까지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 장학위원회 : 오늘 오전 9시 대건회관 1회의실
  - \* 요아킴/안나회 : 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실
  - \* 구역장회의 : 8월 11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독서클럽 모임  
8월 11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3호실  
9월 도서 : 그러니, 십계명은 자유의 계명이라  
문의 : 전교부 510-703-7350
- ◆ 서중부 여성 제 9차 꾸르실료(8/15 - 8/18)  
참가자 : 이경란 베로니카, 윤정점 루시아, 최수영 분다  
\* 참가자와 봉사자를 위한 빨랑카 접수 중  
문의 및 접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참가자를 위한 준비모임 - 오늘 교중미사후 107호실  
선배 꾸르실리스따님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 장학금 신청 접수(친교실)  
신청일시 : 6월 23일 - 8월 11일까지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ageneheo@hotmail.com](mailto:ageneheo@hotmail.com)
- ◆ 주일학교 학부모 피정  
일시 : 9월 8일 오후 1시  
지도 : 본당 신부님  
접수 : 친교실

| 8월 구역모임 |             | 필리피서 3-4장   |
|---------|-------------|-------------|
| 6 구역    | 8월17일(토) 6시 | 조상희 마리아 덕   |
| 9 구역    | 8월24일(토) 6시 | 허순구 라우렌시오 덕 |

- ◆ 19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10일(토) 오전 8시 반 ~ 오후 9시  
장소 : 샌프란시스코 성당  
강사 : 김명선 사도요한 신부님(부산교구 성령체신봉사회 지도신부)  
참가비 : \$25(점심, 저녁 제공)  
문의 : 성령기도회 or 기도회장 510-684-7207  
\* 버스를 예약하신 분들은 8시까지 성당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 ◆ 가톨릭 성서 모임
  - \* 20대 이상 미혼 청년 대상 한국어반, 영어반  
창세기부터 9월에 시작  
접수 : 친교실(8월 11일 마감)  
문의 : 백승진 미카엘 510-730-1524
  - \* 기혼남녀반
    - 월 또는 화 오전반 & 저녁반(창세기)  
봉사자 : 조마오로 수녀님
    - 목 또는 금 저녁반(탈출기) : 창세기를 마친 분들에 한함  
봉사자 : 본당신부님  
문의 및 신청 : 사무실
- ◆ 오늘 점심과 간식 준비에 성물방에서 \$3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미사 : 11시 친교실**  
**주일학교 개학 : 9월 8일**  
**주일학교 등록 : 오늘부터 친교실**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3-2014)**

- 개강 : 2013년 9월 7일
- SAT II 한국어 시험반(8/3, 8/10, 개강 후 10/26까지)
- 특별활동수업 : 소고춤(무용전공 선생님 지도)
- 수업료 : \$300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